

교회 소식

- “열린말씀 컨퍼런스 2021” 안내
 - 주제: 순행과 역행: 변화의 바람 앞에 선 교회
 - 일시: 3월 21일, 28일 (주) 오후 7:00 - 9:00
 - 강사: 한성윤/노진준/류인현/정대성 목사 등
미주한인교회 개혁주의 목사들
 - 참가: 유튜브에서 “열린말씀 컨퍼런스”를 검색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qECJxK4Hs8emfAjGq16fuQ>
-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연령 제한 없이 3주차 주일부터 예배당에 출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족들과 상의해 결정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거리 두기 등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교회도 방역과 환기, 예배 순서 및 동선 유지 등 정해진 안전 수칙을 계속해서 지키겠습니다.
- 부활절(4월 4일) 예배 안내
 - 영어 예배: 오전 11시. Zoom 을 통해 온라인으로
 - 한국어 예배: 오후 1:30. 현장 예배와 YouTube
- 새가정 모임을 시작합니다.
 - 시간: 3월 24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00-9:00
 - 과정: 총 5주
 - 1주: 복음이란 무엇인가?
 - 2주: 구원이란 무엇인가?
 - 3주: 믿음으로 사는 삶
 - 4주: 함께 하는 삶
 - 5주: 교회란 무엇인가?
 - 대상: 새로 믿는 신자, 새로 등록된 가정, 새가정 과정을 하지 않은 교인들, 새가정 섬김에 관심 있는 교인들
 - Zoom: Meeting ID: 914 874 3606 Passcode: 914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윤정호 집사 (시 118:1-2, 19-29)
- 친교: TBA

예배 안내

- **주일예배:** 1:30pm, YouTube
- **English Service:** 12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pm, YouTube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10am, Zoom
- **중 · 고등부(Youth Group)예배:** 12pm, Zoom
 - 주일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817 3134 4066 (Sunday School)
939 020 5125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역사서와 선지서 성경공부:** 수요일 8pm, Zoom
- **중 · 고등부 성경공부:** 금요일, 8pm, Zoom
- **구역모임:** TBA

섬기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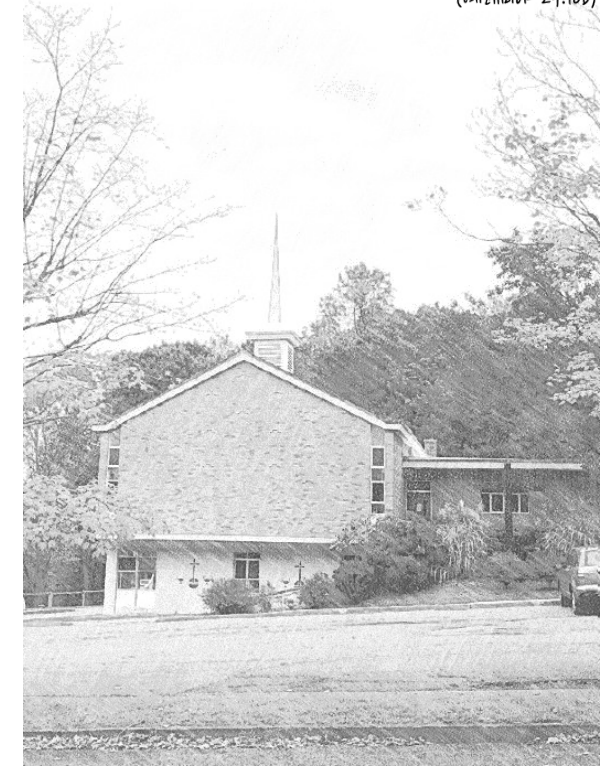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기도

-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에베소서 29:10b)



교회 연락처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Podcast: 뉴욕세광고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뉴욕세광고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12pm> Worship Leader: Pastor Edwin Kim

Opening Praise-----Together

Call to Worship -----Together

Worship & Praise -----Together

Confessional Prayer-----Together

Apostle's Creed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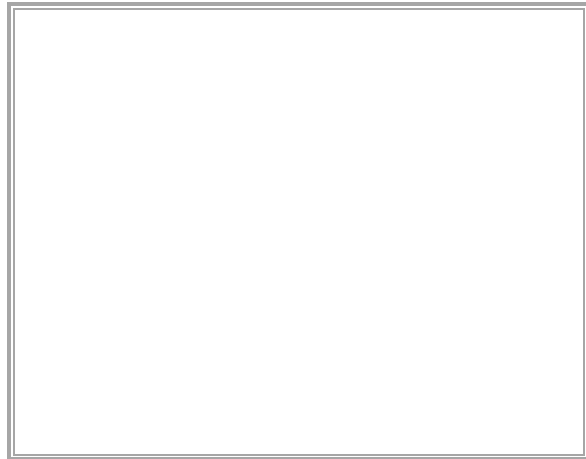
Offering Prayer----- Leader

Word of God----- **Is. 1:11-17, Zc. 7:1-10**----- Leader

Sermon-----“**What Makes Us
People of God?**”-----Pastor Kim

Reflection Prayer-----Together

Benediction -----Pastor Kim



Memo

주일 예배 순서

<오후 1시 30분>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 ----- 인도자
Worship & Praise

*신앙고백-----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28(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함께
Hymn

대표기도 -----시 119:9-16 ----- 오영숙 집사
Prayer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마태복음 19:1-12** ----- 인도자
Word of God

설교-----“**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 이민영 목사
Sermon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찬송-----325(359) “예수가 함께 계시니” -----다함께
Hymn

*축도-----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네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마태복음 18:21-35

용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용서 받은 자유와 용서하는 자유는 세상 모두가 바라면서도 얻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성경에서도 용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용서는 죄 값을 면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된 온전함, 하나님의 살림이 용서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완전 수인 일곱 번째지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최선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는 것이기에 - 그것이 18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 형제를 다시 얻을 때까지 “끝없이” 용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셨습니다.

만 달란트는 못 갚는 금액입니다. 이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신다면 빚진 것 없이 다 행했다고 할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나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자를 믿든 안믿든 우리는 누구나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합니다. 빚지고 못사는 것이 사람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아보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 선행과 수행은 그런 노력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채권자 자신이 탕감해 주기 전에는,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 값으로 그 빚을 친히 갚았습니다. 빚을 다 받지 않는 것은 손해요 희생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친 속량 만큼 크고 궁극적인 손해는 없습니다.

예수의 목숨 값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은 것은 그저 우리가 벌을 면하고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을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예수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회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용서해주시는 목표를 붙잡을 때 이웃이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 치르신 희생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은 이걸 몰랐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이 안 났습니다. 백 데나리온이 훨씬 실감 나는 손해였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한량 없는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손해가 억울하거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용서의 이유입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살아 돌아온 동생이 미운 형이 되지 말고,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라는 아버지의 관대함에 동참하는 참 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일생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지지도, 요구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분명 합리적이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기쁨과 상급으로 대신 갚아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용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진 쉽고 가벼운 짐이 됩니다.